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AI 수익성 우려, 연준 위원 매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0일(목) 미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로 장 초반 급등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AI 수익화 우려 재점화, 9월 고용보고서 내 혼재된 결과, 연준 리사 쿡 이사 발언(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언급) 등 기존에 알고 있던 불확실성 요인이 재부각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다우 -0.84%, S&P500 -1.55%, 나스닥 -2.15%)

AI 버블론,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흐름. 먼저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았으나(3Q 매출액 570.1억 vs 컨센 549.2억,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 YoY 66% 상승, GPM 2Q 72% → 3Q 73.6% → 4Q 가이드스 70%대 중반 전망 등), 하이퍼스케일러사 중심의 고객사 편중, 중국 수출 제한, 엔비디아와 고객사 간 순환 거래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 여기에 엔비디아 매출채권 상승을 빌미로 하이퍼스케일러사의 AI 수익화 지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AI 버블 우려를 자극.

이와 더불어 연준 리사 쿡 이사의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현재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준은 아니지만 부실 경고 우려가 커진 사모대출 시장과 관련해서 주의해야한다' 라는 발언 또한 AI 관련주에 대한 매물 출회를 자극하며 투자심리 악화(현재 Fear and Greed Index 6pt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 수준)

한편, 이날 발표된 9월 고용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9월 비농업 고용은 +11.9만 명(vs 컨센 5.1만명, 전월 수정치 4천명)으로 증가했으나, 실업률도 4.4%(vs 컨센 및 전월 4.3%) 상승하며 다소 혼재된 결과. 9월 고용 데이터 자체가 오래되었고 긍정, 부정 영향이 혼재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금번 고용 지표가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 이러한 가운데 연준 내 대표 비둘기파였던 굴스비 위원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언급한 점도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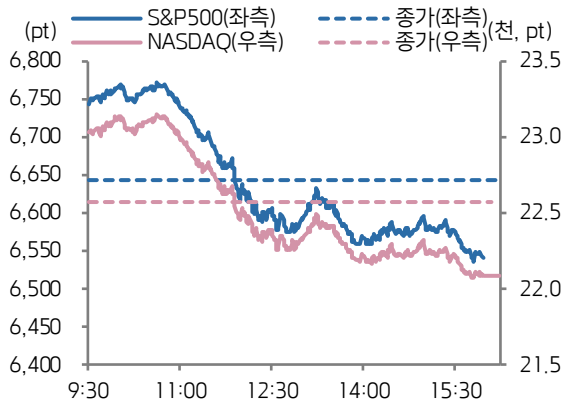
차주에도 이 같은 AI 버블 우려, 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킬만한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 결국, 12월 FOMC(12/11) 전까지 관련 노이즈 이어지며 미 증시는 매물 출회 vs 저가 매수 자금 유입 등이 상존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스 상향 속 대형 반도체주,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등 AI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 상승 마감. 그 외 특징 업종을 살펴보면 중일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로 화장품, 여행 등 소비재 섹터가 상승한 점도 특징적 (코스피 +1.92%, 코스닥 +2.37%).

금일 국내 증시도 AI 고평가 우려 속 마이크론(-10.9%)을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4.8%) 급락을 반영하며 전일 상승했던 반도체, 전력기기 등 AI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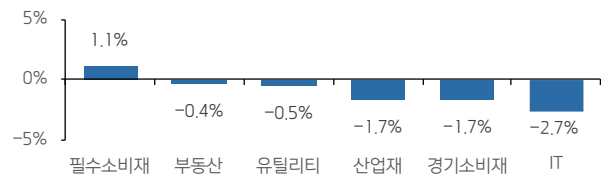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속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기준금리 동결 전망 가능성 확대, 일본 엔화 약세 속 재차 1,470원대로 상승한 상태. 단기적으로는 환율 향방이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시, 원화 약세 지속 여부 및 외국인 수급 향방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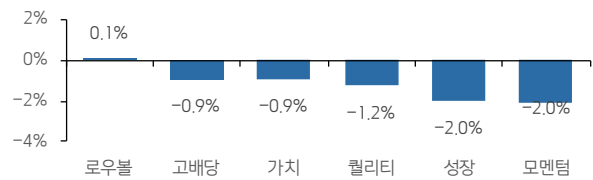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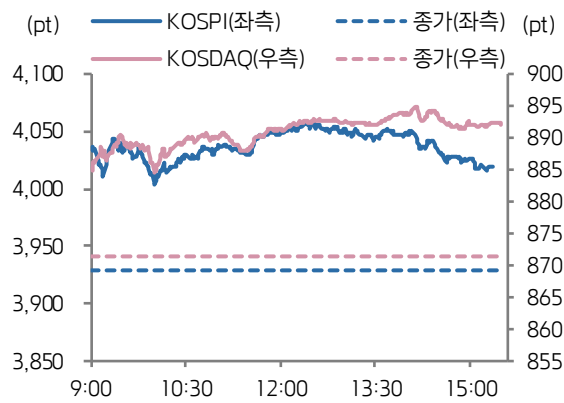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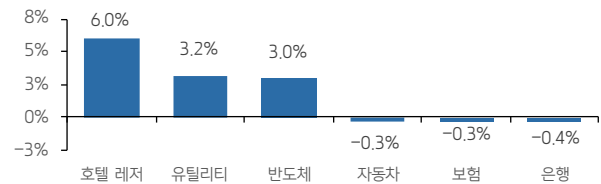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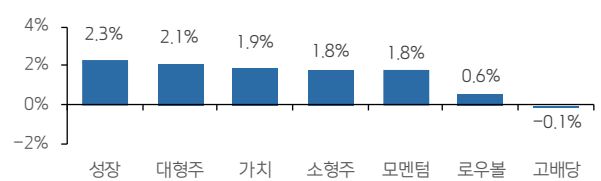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66.25	-0.86%	+6.8%	GM	68.04	-0.67%	+28.79%
마이크로소프트	478.43	-1.6%	+14.34%	일라이릴리	1,043.29	-0.6%	+36.15%
알파벳	289.45	-1.15%	+53.4%	월마트	107.11	+6.46%	+19.44%
메타	589.15	-0.2%	+0.86%	JP모건	298.38	-1.61%	+27.11%
아마존	217.14	-2.49%	-1.03%	엑손모빌	117.02	-0.28%	+12.78%
테슬라	395.23	-2.17%	-2.13%	세브론	150.31	-0.92%	+8.59%
엔비디아	180.64	-3.15%	+34.54%	제너럴일렉트릭	107.11	+6.5%	+19.4%
브로드컴	346.82	-2.14%	+50.66%	캐터필러	546.13	-1.26%	+52.82%
AMD	206.02	-7.84%	+70.56%	보잉	179.38	-3.4%	+1.34%
마이크론	201.37	-10.87%	+139.96%	넥스트에라	84.30	+0%	+2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004.85	+1.92%	+66.9%	USD/KRW	1,472.20	+0.25%	-0.01%
코스피200	564.20	+2.09%	+77.52%	달러 지수	100.26	+0.03%	-7.58%
코스닥	891.94	+2.37%	+31.52%	EUR/USD	1.15	-0.1%	+11.32%
코스닥150	1,574.54	+2.81%	+39.36%	USD/CNH	7.12	+0.02%	-2.98%
S&P500	6,538.76	-1.56%	+11.17%	USD/JPY	157.56	+0.25%	+0.23%
NASDAQ	22,078.05	-2.15%	+14.33%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5,752.26	-0.84%	+7.54%	국고채 3년	2.912	+4.2bp	+31.7bp
VIX	26.42	+11.67%	+52.28%	국고채 10년	3.332	+5bp	+46.1bp
러셀2000	2,305.11	-1.82%	+3.36%	미국 국채 2년	3.537	-5.5bp	-70.5bp
필라. 반도체	6,352.07	-4.77%	+27.55%	미국 국채 10년	4.086	-5bp	-48.3bp
다우 운송	15,525.72	-1.4%	-2.33%	미국 국채 30년	4.724	-3.2bp	-5.7bp
상해종합	3,931.05	-0.4%	+17.28%	독일 국채 10년	2.716	+0.5bp	+34.9bp
항생 H	9,143.34	-0.08%	+25.4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5,632.68	+0.52%	+9.59%	WTI	59.00	-0.42%	-13.0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3.38	-0.2%	-15.09%
Eurostoxx50	5,569.92	+0.5%	+13.77%	금	4,060.00	-0.56%	+46.73%
MSCI 전세계 지수	977.21	+0.12%	+16.15%	은	50.30	-1.09%	+72.02%
MSCI DM 지수	4,264.13	+0.15%	+15%	구리	496.85	-1%	+23.4%
MSCI EM 지수	1,360.31	-0.11%	+26.48%	BDI	2,260.00	+1.99%	+126.68%
MSCI 한국 ETF	88.53	-2.24%	+73.96%	옥수수	437.75	-0.85%	-3.8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1.25	-1.5%	-11.81%
비트코인	87,138.76	-3.72%	-7.02%	대두	1,123.00	-1.17%	+8.63%
이더리움	2,871.77	-3.93%	-14.19%	커피	376.65	+0.48%	+34.8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